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공개 강좌

국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기록
『승정원일기』

신병주(건국대학교 교수)

2023. 12. 13.(수)
14:00 ~ 16:00
제주문화관 대강당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I 강좌 개요

- **강좌명:** 승정원일기 탐독 –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 **기간:** 2023년 11월 22일 ~ 12월 13일, 매주 수요일 14:00 ~ 16:00(총 4회)
- **내용:**
 - 조선시대에 편찬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역사 기록이며, 오늘날 다양한 역사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제주학연구센터는 2016년부터 『승정원일기』 속 왕대별 제주 기사를 발췌하여 번역·편찬하는 사업을 8년째 수행해 오고 있음.
 - 이번 강좌는 그간의 번역 성과를 돌아보고,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귀중한 기록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 특히 『승정원일기』 제주기사에 나타난 제주 역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주도민과 함께 재미있게 탐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대상:** 제주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장소**
 - 1) 일반 강좌: 제주학연구센터 2층 강의실
 - 2) 공개 강좌: 제주문화관 대강당 / 누구나 참여 가능

II 강의 내용

구분	일자	주제	강사
일반 강좌	11/22(수)	『승정원일기』의 편찬 과정과 관리 체계	조계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1/29(수)	17·18세기 제주지방 官人 묘비문과 승정원일기 기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12/6(수)	기록으로 보는 정조의 제주 통치론	김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교수)
공개 강좌	12/13(수)	조선조 기록문화의 꽃,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중심으로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

공개 강좌

국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기록 『승정원일기』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국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기록 『승정원일기』



신병주
(건국대 교수)

1. 『승정원일기』란?

승정원
(承政院)

-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음
- ✓ 비서실의 기능 별칭: 후원(喉院)
- ✓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



"한양으로부터 기별이 왔느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1. 『승정원일기』란?

승정원일기

건국 초부터 작성된 것으로 여겨짐

1623년~1910년까지 288년간 3,243책이 남아있음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1. 『승정원일기』란?



- 다른 제목의 책들 포함 (비서실의 기능을 하던 승정원의 명칭이 바뀐 것에서 연유)
- 『승정원일기』 체제 그대로 유지
- 이들 책들을 포함한 전체의 책명을 『승정원일기』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음

참고자료: 승정원일기 국보 지정 내역

지정일	지정번호	책명	책수
1999년 4월 9일	국보 제 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45책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4책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5책
		전비서감일기(前秘書監日記)	8책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115책
		후비서감일기(後秘書監日記)	33책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33책
		계	3,243책

1. 『승정원일기』란?



1. 『승정원일기』란?

원본 1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해독이 용이하지 않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1년부터 탈초(脫草)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제공(정보화 사업)

1. 『승정원일기』란?

〈 민족문화추진회 〉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 ✓ 1994년부터 고종대 승정원일기를 시작으로
국역 사업 단계적으로 추진
- ✓ 인조시대와 영조 시대의 승정원일기 국역(일부)
- ✓ BUT 예산과 인력 부족 ⇒ 완역 수십 년 걸림

1. 『승정원일기』란?

건국된 후 매일 기록
→ 전량이 남았다면 6,400여권

조선전기
임진왜란, 이괄의 난
병화와 정변
대부분 소실

인조대 이후 책들 남음
화재 → 춘방(春坊)일기,
조보(朝報), 당후(堂後)일기
등을 종합
빠진 부분을 채워 나감

2. 『승정원일기』의 작성

- 편찬: 승사(承史)라 칭하는 승지와 주서가
공동으로 담당
- 최종 기록: 주서가 담당

주서
(注書)

- ✓ 춘추관 기사관을 겸함
- ✓ 국내외 각종 기록들을 두루 검토,
정리하는 임무를 수행
- ✓ 반드시 학문과 문장이 검증된 문관
임용 (승지-무관도 임명 가능)
- ✓ 승정원의 사관

2. 『승정원일기』의 작성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
(왕에게 올리기 전
유출 엄격히 금지)



한 달 분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음

- 내용 기록 전: 승정원 관리들의 실명(實名)을 적음
<병이나 사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까지
병(病), 재외(在外), 식가(式暇) 등의 표현으로 기록>
- 기록의 실명화 → 책임감 + 자부심 + 사명감

2. 『승정원일기』의 작성

- 보관:
승정원 일대로 추정
- 「동궐도」
인정전 동쪽
대청(臺廳)과
문서고(文書庫) 사이
'은대(銀臺)'



2. 『승정원일기』의 작성



3.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물

인조대 이후 조선후기 역사를 총람하는데 필수적인 자료

매일 씀 - 하루, 한 달, 일 년의 정치 흐름 이해

정치의 주요 현안,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

3.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국왕의 건강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함

국왕이 정무를 보던 장소, 시간대별 국왕 동선 파악 용이

역사의 기록물이자 정치의 참고자료로 항상 활용

『조선왕조실록』과 서로 보완관계

3.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

승정원일기

〈 빠짐없이 기록된 날씨 〉

- 청(晴:맑음), 음(陰:흐림), 우(雨:비), 설(雪:눈) 등

- '오전청오후설(午前晴午後雪)'

하루 중 일기 변화까지도 기록

- 비가 내린 경우 측우기로 수위 측정 결과도 적음

- 전통시대 기후연구에 큰 도움

참고자료: 근대사 자료의 보고 『승정원일기』



-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손에 의해 집필 → 정사(正史)로서 정통성 부족

- 이 시기 대체 자료로서의 의미가 큼 (1차 자료)

- 1894년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바뀜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등 198책
황제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정치적 사건과 궁중의 비화 등이
생생히 정리

→ 근대사 연구의 기본자료

- 서구 열강과의 외교관계,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는 왕실의 모습

→ 한말 대외관계사 연구에도 필수적인 자료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상이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여(興)에
올라 선화문(宣化門)을 나갔다. 약방 제조 김병주와 부제조
이재면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아침 일찍 수고로이 거
등하셨는데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한
결같다고 하였다.

협양문(協陽門)을 나가 건양문(建陽門)·동룡문(銅龍門)·
청양문(靑陽門)을 지나 춘당대로 갔다. 통례가 꿇어앉아
여에서 내리기를 계청하자 상이 여에서 내려 좌(座)에
올랐다. 이재면이 아뢰기를, "표신(標信)을 내어 둘러친
포장(布帳)을 열어 유생을 입장시킬까요?"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내린 표신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이재면이 아뢰기를, "시위(侍衛)와 따라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도 시관(試官)으로 낙점된 자가 있는데, 내려가서 예를 행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부수찬 엄세영(嚴世永) 및 유생들이 차례로 서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차례차례 자리로 갔다. 황중현이 입문 단자(入門單子)를 읽었다.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상이 시관에게 부(賦)의 제목을 쓰라고 명하였는데,
'대궐문에 나와 정치에 대해 묻는 날에 조정과 향당에
하유하시니 기강이 서고 풍속이 바로 잡히네.
[端門訪治之日 諭朝廷鄉黨 立紀綱正風俗]' 라는 것이었고,
마감 시간은 신시(申時)였다. 김세균이 끓어앉아 써서
읽기를 마치자 홍대종이 받들고 나가 내걸었다. 황종현이
강(講)할 서책 망단자를 올리자 상이 《시전》을
낙점하였다.
이어 강을 열라고 명하니, 황종현이 아뢰기를,
"강할 장(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추첨해서 하라." 하였다.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상이 직접 4명의 강을 받았다. ... 황종현이 아뢰기를,
"첫 번째 장이 이미 들어왔으니, 둘러친 포장을 열어
시권(試券)을 낸 유생들을 차례로 내보낼까요?"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직접 5명의 시권을 받고, 이어 소차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상이 소차를 나와 직접 6명의 시권을 받고 상이
소차로 들어갔다. 조연창(趙然昌)이 강을 끝내고
방목(榜目)을 써 들였다. ...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이어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춘도기 강(講)에서 통(通)으로 수석한 유학(幼學) 이신국(李愼國)과 제술의 부(賦)에서 삼하(三下)로 수석한 유학 홍만식(洪萬植)은 직부전시(直赴殿試)하고, 강에서 통으로 2등한 유학 김복성(金復性) 등 7명과 제술에서 초삼하로 2등한 김영수(金永壽)는 직부회시(直赴會試)하고, ... 강에서 약으로 4등한 유학 권재학(權在學) 등 6명, 제술에서 차상(次上)으로 4등한 진사 조용섭(趙容燮) 등 2명에게는 1분을 주고, 강에서 조(粗)로 5등한 생원 정달교(鄭達敎) 등 13명과 제술에서 차상으로 5등한 생원 유도(柳燾) 등 5명에게는 각각 《규장전운(奎章全韻)》 1건(件)을 하사하라."

참고자료: 춘당대 시험장 풍경(1866년 3월 3일)

또 명하여 전교를 쓰게 하기를, "합격한 유생들을 내일 대령시키라." 하였다. 통례가 예가 끝났음을 무릎 꿇고 아뢰니 상이 자리에서 내려왔고, 통례가 여에 타도록 계청하자 상이 여에 탔다. 청양문·흥덕문(興德門)·명광문(明光門)·동룡문·건양문을 지나 협양문에 이르렀을 때 병조 참판 이주철이 방장(放杖)을 계품하였고, 이원회가 표신을 내어 해엄(解嚴)하기를 청하였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 승정원일기: 비서실에서 기록한 만큼
왕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한 기록이 자세함
- 숙종 26년 7월 25일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평안도 지역에서 문신
출신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

숙종실록
약 10행
(1행은 30자)
핵심내용만 기술

vs

승정원일기
4면 (1면은 30행,
1행은 27자) 21행
왕과 이세백 대화
모조리 기록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1653년(효종 4) 네덜란드 무역
선 스페르베르(Sperwer) 호, 난
파되어 제주도 상륙(64명 중
36명)
-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다가 8명 탈출
- 귀국선 서기 '하멜(Hamel)'
하멜표류기 작성



네덜란드 호린험에 있는
하멜 동상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권 11, 1653년(효종 4) 8월 6일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원진(李元鎭)이 치계(馳啓)하기를,

“배 한 척이 고을 남쪽에서 깨져 해안에 닿았기에 대정 현감(大靜縣監) 권극중(權克中)과 판관(判官) 노정(盧錠)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보게 하였더니,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배가 바다 가운데에서 뒤집혀 살아 남은 자는 38인이며 말이 통하지 않고 문자도 다릅니다. … 파란 눈에 코가 높고 노란 머리에 수염이 짧았는데, 혹 구레나룻은 깎고 콧수염을 남긴 자도 있었습니다. … 왜어(倭語)를 아는 자를 시켜 물기를 ‘너희는 서양의 크리스찬[吉利是段]인가?’ 하니, 다들 ‘야야(耶耶)’ 하였고, … 이어서 가려는 곳을 물으니 낭가삭기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조선왕조실록〉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전에 온 남만인(南蠻人) 박연(朴燕)이라는 자가 보고 ‘과연 만인(蠻人)이다.’ 하였으므로 드디어 금려(禁旅)에 편입하였는데, 대개 그 사람들은 화포(火砲)를 잘 다루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에는 코로 통소를 부는 자도 있었고 발을 흔들며 춤추는 자도 있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하멜표류기〉

하멜표류기 1653년(효종 4) 8월 21일

우리는 대정이라는 작은 읍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식사 후에 창고 같은 곳으로 가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곳은 여관이나 숙소라기보다는 마구간 같은 곳이었다. 오늘은 약 6km 정도를 여행하였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하멜표류기〉

하멜표류기 1653년(효종 4) 8월 22일

오후에 우린 제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제주 목사의 관저가 있었다. 우리가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를 관청의 앞마당에 모이게 하여 미음 한 그릇씩을 들게 했다. 우린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식사이고 모두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총이랑 전쟁에서 쓰는 갖가지 물품들, 다양한 옷차림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약 3,000명 정도의 무장 병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동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사이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이었다. ... 목사는 우리를 어떤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현 왕의 숙부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곳이었다. 그는 왕위를 찬탈하고 선왕을 폐위하려다 이 섬으로 유배되었던 것이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하멜표류기〉

그 총독은 선량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70세 가량 된 그는 서울 출신으로 조정에서도 상당한 신망을 받고 있었다. 그는 왕에게 편지를 띄워서 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 주는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까지의 거리는 해로로 90km, 육로로 500km 이상이라서 답신이 빨리 오지 않았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하멜표류기〉

하멜표류기 1653년(효종 4) 10월 29일

오후에 서기와 일등항해사 그리고 하급선의(下級船醫)가 제주 목사에게 불러갔다. 그곳에 가 보니 긴 붉은 수염을 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목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 와서 우린 '우리와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총독이 웃으며 우리에게 그는 조선 사람이라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었다. 많은 이야기와 손짓 발짓을 주고받은 끝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은 우리 말로 떠듬떠듬 우린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우린 그에게 '암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조선왕조실록〉

효종실록 권14, 1655년(효종 6) 4월 25일

당초에 남만인(南蠻人) 30여 인이 표류하여 제주(濟州)에 이르렀으므로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잡아서 서울로 보내었다.

현종개수실록 권16, 1667년(현종 8) 2월 26일

일찍이 갑오년에 남만인의 배가 표류해 대정의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탄 배가 죄다 파손되어 돌아갈 수가 없었다. 제주 목사가 치계하여 여쭙자 그들을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병오년 가을에 그중 8명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표류해 일본 오도에 도착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653년(효종 4) 12월 4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본월 30일 인견(引見)할 때에 영의정의 소계(所啓)에, ‘제주 표류인 물화(物貨) 중 녹피를, 그 쓸 수 있는 것을 가려서 본조(本曹)에 바꾸어 쓰게 하고 그 값으로 주는 물건은 사복시(司僕寺)가 저장해둔 둔전에서 나온 목화로 제급(題給)하여 저들이 겨울을 나는 채비로 삼게 한 것은 실로 편리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 제주목사에게 이미 명령을 내려 그것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다만 저들이 이 겨울을 당하여 옷감이 가장 시급함으로 사복시 둔전의 목화를 이미 표류인 36명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662년(현종 3) 1월 20일

“1년 전 제주로 표류해 다다른 만인을 … 전남 병영(兵營)으로 모두 보내고 관에서 식량을 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제하고 남은 수가 여전히 23명입니다. … ‘병영은 강진(康津) 지방인데 강진에 회부(會付)한 쌀로 만민들에게 지급하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본현(강진현)이 더욱 기근과 흉년이 심해 … 진휼·구제 [賑濟] 에는 오히려 걱정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만민 먹이기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어 이들 무리를 다른 읍의 좀 나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 좌수영(左水營)과 좌도(左道)의 큰 고을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전교하기를 “윤희한다” 하였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1666년(현종 7) 10월 24일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동래부사(東萊府使) 안진(安縝)의 장계를 보니, 아란타인(阿蘭陀人)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몇 해 전에 제주에 표도(漂到)했던 남만인(南蠻人)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듯합니다. 이 만인은 훈련도감에서 일찍이 전라병영(全羅兵營)과 순천(順天) 등의 다섯 읍으로 내려 보냈고, … 지금 들으니, 8명이 금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작은 배를 타고 일본 오도(五島)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 우선 먼저 도망 여부를 조사하여 밝혀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윤희한다.”라고 하였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하멜의 표류〉

제주도 서귀포시 하멜기념비

네덜란드와 한국 간의 우호증진의 증표로 1980년
네덜란드 대사관과 한국국제문화협회에서 건립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 승정원일기:
 - 왕과 신하들의 독대 기록이 특히 자세함
 - 왕의 표정하나 감정하나까지도 상세히 표현
 - 왕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이 할애
- 영조 36년 3월 16일

영조실록
청계천 준설공사
완료, 준천사실
책자 완성 - 간략

VS

승정원일기
청계천 공사에
임하는 심정
구체적 공사 과정
- 매우 상세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 승정원일기 1758년(영조 34) 5월 2일
 - 영조가 미시(未時:오후 2시경)에 승문당에 나갔을 때의 기록
 - 영조가 어영대장 홍봉한, 승지, 기사관, 기주관 등과 준천 문제를 깊이 논의한 사실이 나타남

영조: 저번에 광충교(廣衝橋)를 보니 전년에 비해 더욱 흠이 빠져 막혀 있다. 가히 걱정이 된다.

홍봉한: 하천 도랑의 준설이 매우 시급합니다. 만약 홍수를 만나면 천변(川邊) 인가는 반드시 표류하거나 없어지는 화를 입을 것입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영조: 경들은 도랑을 준천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가?

홍봉한: 신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즉 어찌 진력하여 받들어 행하지 않겠습니까?

영조: 서울의 백성들을 불러 물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비록 하천을 준설해도 사토(沙土:모래흙)를 돌 곳이 없지 않은가?

홍봉한: 혹은 배로 운반하고, 혹은 수레에 싣고, 말 짐에 얹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영조 (웃으며): 성중(城中)에 배를 들일 수 있는가?

홍봉한: 배로 운반한다는 것은 큰 비가 내릴 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영조: 사관(史官)들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 말해보라.

사관: 도랑을 준설하는 것이 급한 일이나, 만약 민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초기에는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영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말해보라.

기사관 이해진: 시골의 사람들은 준천의
이해난이(利害難易)에 대해 정견(定見)이 없습니다.
도성내의 여론을 수집해본 즉 준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기주관 서병덕: 준천의 계측은 일찍이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북악이 잘 붕괴되고 동쪽 도랑이 잘 막히니, 먼저 북악의
수목(樹木)을 기르고, 동쪽 도랑의 막힌 부분을 깊이 판
연후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 영조 36년 2월 23일
 - 영조실록: 호조판서 홍봉한이 성 밖의
물길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아뢰자 이를 윤허한
내용이 짧게 기록
 - 승정원일기: 매우 상세한 기록

진시(辰時:오전8시경) 회정당에서

영조: 나의 마음은 오로지 준천(濬川)에 있다. ...
오칸수문의 역사는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 6일내에 일을
마치니 신기하다.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홍봉한: 수문지간에 흙을 파기가 힘들었으나 한번 구멍을 뚫으니 점차 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여러 백성의 힘이 하늘을 이긴 것입니다.

영조: 정말 그러하다.

홍봉한: 맹인들도 부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조: 그들이 흙과 물을 볼 수 있는가

4.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비교 〈영조의 청계천 공사〉

홍봉한: 반드시 그들이 가동(家僮)과 노비의 일을 하고자 한 것인즉 부역을 할 수 없다는 뜻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영조: 그 마음은 가상하다.

5. 『승정원일기』의 다양한 기록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

상이 이르기를, "전조가 병력이 강성하여 적을 토벌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내란이 연달아 일어났으니 참으로 경이 우려했던 것과 같다." 하였다.

이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소견으로는, 고(故)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같은 이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순신과 같은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5. 『승정원일기』의 다양한 기록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

상이 이르기를, "왜란 당시에 이순신 하나밖에는 인물이 없었다." 하니,

이원익이 아뢰기를, "이순신의 아들 이예(李瑔)가 현재 충훈부 도사로 있는데 그도 얻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란 때에 이순신이 곧 죽게 되자 이예가 붙들어 안고서 흐느꼈는데, 이순신이 '적과 대적하고 있으니 삼가 발상(發喪)하지 말라.' 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예는 일부러 발상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전투를 독려 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1631년(인조 9) 4월 5일.

6. 『승정원일기』의 의미와 활용

2022년 한국고전번역원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전체 번역의 32%가 이루어졌고 2,400여책의 분량이 남아 있다. 현재의 진도대로 나간다면, 2,048년 경에 완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고전번역원의 고전종합DB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조, 고종, 순종 시대의 전량이 번역되었고, 영조는 즉위년인 1724년부터 1740년까지의 『승정원일기』가 번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6. 『승정원일기』의 의미와 활용

조선 왕실의 숨결까지 담겨 있는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생활사 모습 복원에 가장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적극적인 활용은 조선시대 문화 원형의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국역 사업이 모두 이루어진 된다면 조선왕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생동감 있게 다가설 것으로 기대가 된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0 horizontal dashed lines.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ashed lines.



제주학연구센터
〈승정원일기 탐독〉

승정원일기를 탐^耽하다

발행일

2023년 11월 22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www.jst.re.kr

디자인 · 제작

한그루 onetreebook.com

비매품